

함께해 주세요!

1. 농림수산식품부에 '전시,공연용 돌고래 포획허가' 조항을 삭제하도록 민원을 넣어주세요!
▷ <http://bit.ly/J5WLPJ>
2. 울산을 제2의 다이저로 만들려는 김두겸 남구청장에게 항의해주세요!
▷ <http://bit.ly/p4SCUu>
3. 멸종위기 돌고래를 불법포획하고 쇼를 지속하며, 돌고래 몰수에 불복한 제주퍼시픽랜드에 항의해주세요!
▷ <http://bit.ly/lshZqb>
4. 무엇보다 돌고래 전시, 쇼 티켓을 사지 말아주세요!

“수족관의 돌고래를 관찰하며 돌고래를 배운다는 것은 디즈니랜드의 미키마우스를 보고 쥐의 생태를 공부하는 것과 같다”

—릭 오베리(Ric O' Barry)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 인식의 저변 확대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등록법인이며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동물 학대의 방지와 구조, 동물복지에 대한 교육, 동물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사회현장 고발 및 인식재고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동물운동 환경이 척박한 이 땅 대한민국에서,
저희 동물자유연대가 참다운 동물단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 806201-04-005468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
농협 : 015-17-002592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

[HomePage] www.animals.or.kr [Twitter] @animalkorea

하루에 160 킬로미터 이상을 수영하던 돌고래들은
좁은 수족관 안에서 무슨생각을 할까요?



돌고래는 어떤 동물?

돌고래의 지능은 오랑우탄, 침팬지 등의
영장류나 인간의 영아와 같은 수준!



돌고래는 가장 지능이 높은 동물 중의 하나이고, 자의식이 있으며 관념적 사고까지 가능합니다.
하루에 100마일 이상씩 이동을 하며 광장히 다양한 어류를 섭취하지만 포획된 상태에서는 1~2
종류의 죽은 물고기 밖에 먹지 못합니다.

가족과 친구들 간에 강하고 복잡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사회적 동물!

돌고래는 사회적으로 끈끈한 연대관계를 갖고 있으며 평생을 가족으로 이뤄진 한 무리 안에서
생활하며 보냅니다. 돌고래를 포획해서 사육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그것이 한 가족을 해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상태에서 돌고래들은 살아있는 물고기를 사냥하거나 동족과
교류하면서 집단으로 놀이를 하는 등의 습성을 보인답니다.

돌고래 포획의 잔인성!

돌고래의 민감한 청력을 이용!
공포심 유발, 방향감각 손실하게 해...



돌고래는 생포를 해야 전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고래 사냥꾼은 비행기, 배, 작살, 폭발물 등의 소음을 사용해 인간보다 몇 천 배 민감한 청각을 가진 돌고래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방향감각을 잃게 합니다. 이러한 포획을 통해서 돌고래들은 치사율이 6배나 상승할 정도로 죽음만큼의 격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을 느낀다고 증명되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스트레스는 포획된 돌고래 뿐 아니라, 그 돌고래가 속한 무리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과학자들은 돌고래들이 포획 스트레스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데에는 적어도 한 달이 걸리고 어떤 돌고래들은 절대로 회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은, 고래류를 살아있는 상태로 생포하는 것은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성명을 낸 바가 있습니다.



쇼장에 거래 or 살육!

연안으로 내몰린 돌고래. 사냥꾼들은 전 세계의 돌고래 수족관과 돌고래 쇼장에 팔기 위한 돌고래들을 고릅니다. 나머지는 살육당해 고농도의 수은 축적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고래고기로 팔려나갑니다.

가족과 동료들 지키기 위한 몸부림!

돌고래들은 종종 자신들의 가족과 동료를 구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실제 캐나다 연안에서 시애틀의 수족관에 팔려가기 위해 잡힌 고래 "나무"는 철창에 갇혀서 운송되는 내내 그의 가족들이 배를 따라오기도 했습니다.



출처: 한겨레(강재훈 선임기자)

수족관의 잔인성!

비좁고 제한된 공간!

하루에 160 킬로미터 이상을 수영하던 돌고래들은 하루 아침에 몸을 겨우 돌릴 수 있을 만 한 크기의 수족관에 갇힙니다. 좁은 수족관 벽에 부딪히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포획된 돌고래의 절반을 스트레스로 사망하게 합니다.

화학물질이 첨가된 소독물에 노출!

돌고래의 배설물을 소독하기 위한 염소 등 화학물질로 유지되는 수족관의 물..이로 인해 돌고래들은 피부가 벗겨지고 심지어 시력을 잃기도 합니다.



출처: 한겨레(강재훈 선임기자)

스트레스로 인한 이상 행동!

제한된공간과 인위적이고 단조로운 환경, 죽은 먹이 등의 스트레스로 인해 돌고래들은 작은 원 모양으로 반복적으로 도는 상동증과 무기력하게 물 위에 떠 있는 이상 행동을 흔하게 보입니다.

죽은 먹이로 인한 질병!

자연상태의 돌고래들은 살아있는 물고기를 먹이를 섭취합니다. 하지만 사육 돌고래는 죽은 먹이를 공급받는 등의 스트레스로 만성 위장병에 시달립니다. 위장병에 시달리는 돌고래들에게는 위장약을 넣은 생선이 급여됩니다.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돌고래는 물 안에서 입상부 뱃속의 태아의 심장소리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청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고래쇼장에서 듣는 크게 울려 퍼지는 음악과 청중의 함성은 참기 힘든 고문입니다.

때문에 전 세계에서 사육되는 돌고래 중 반 이상이 포획 도중이나 감금 상태에서 내장 기관 질병, 염소 중독, 또는 스트레스 관련 질병으로 폐사합니다.



사진출처: dolphinproject

돌고래 방생이 더 잔인하다?

1964년부터 70마리 이상의 돌고래가 자연에 방생! (미국 해양 수산부)

- * 1993년 브라질 : 10년 이상 사육시설에 있던 돌고래 '플리퍼' 방생, 1995년까지 관찰
- * 1992년 바하마 : 17년 동안 갇혀있던 돌고래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감
- * 1990년 미국 플로리다 주 : 실험용으로 2년간 사육된 돌고래 예코와 미사가 성공적으로 방생
- * 1992년 호주 : '아틀란티스 마린 파크' 라는 수족관이 경제난으로 문을 닫으면서 수족관 안에서 탄생한 개체 2마리를 포함한 11마리의 돌고래를 방생. 이 중 9마리는 무려 11년을 감금당해 있었음.

야생에서의 먹이 습득 능력과 약화된 체력을 회복시키는 적응 훈련을 통해 돌고래에게 고향으로 되돌아갈 자유를 주는 것이 포획한 인간의 책임입니다!